

48 旅庵全書 여암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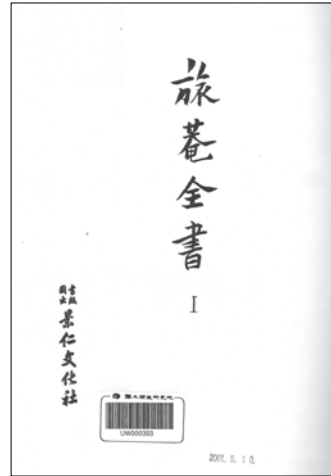
1979년 / 여암(旅庵) 신경준(申景濬) / 512면 / 12,10-05 신 1979

여암(旅庵)은 18세기의 실학자인 신경준(申景濬, 1712~1781)의 아호다. 신경준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42세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다. 이때부터 관계에 진출하여 서산군수(瑞山郡守), 장연현감(長淵縣監), 북청부윤(北靑府尹), 강계부사(江界府使) 및 순천부사(順天府使) 등을 역임하였으나 사소한 실수로 처벌을 받는가 하면 파직과 유배를 겪는 등 그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다.

그가 실학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성리학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지리·역사 같은 이용 방면 학문에 전념하였다. 이 『旅庵全書(여암전서)』는 신경준의 모든 저술을 통틀어 1979년에 경인문화사가 출간한 것인데 한자본(漢字本) 그대로다.

1권에는 유명한 『疆界考(강계고)』와 『山水考(산수고)』가 있다. 『疆界考』는 역사학·지리학적 저술이다. 우리나라 고대국가들의 수도 및 국경과 고지명(古地名)의 연혁을 기왕의 고전에서 추출하여 기술하고 자기 견해를 붙이기도 했다.

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은 한백겸(韓百謙, 1550~1613)의 『東國地理志(동국지리지)』가 효시이나 여암의 『疆界考』는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. 이밖에 그의 역사에 관한 견해는 『送使之日本序(송사지일본서)』에 신라가 일본의 내륙지방을 정복한 유일한 나라임을 논증하고 있다.



『山水考』는 군·현별로 산과 강의 줄기를 논하고 있다.

2권에는 신경준의 『道路考(도로고)』가 있다. 신경준의 도로관(道路觀)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. 첫째로, 그는 “길과 집은 중요성이 같다”라고 말함으로써 생산, 즉 유통과 생활(주택)을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.

전통적인 유교사회, 즉 군자불기(君子不器) 사상으로 상공업을 천대하는 사회, 기(技)와 예술을 경시하는 사회, 그러면서 명분과 배타 공리주의에 치우쳐 예절만을 문제삼으며 허례허식에 빠진 사회에서 도로의 기능과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시와 더불어 강조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. 더욱이 그는 치도(治道)를 왕정의 근본으로 삼으라 했고 미래를 내다보고는 “사람이 길 위에 있음이 많아진다”라고 주장하기도 했다.

필자는 『道路考』를 재임 중에 번역 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.

